* 성령하나님:
  + 하나님의 영(신) : 창조시 역사하심.
  + 삼위일체 => 한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분이 하나로 존재하신다.
  + 사랑은 성경적으로 보면 신뢰한다는 뜻이 있다.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 앞에서 자기주장을 안하게 된다 – 자기를 비우게 된다.
  +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깐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실수 있었다. 그런면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것이다.
  + 그러나 한분의 세가지 모습을 가지고 삼위일체 라고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세분이 있으나 한몸 처럼 사랑하고 존재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라고 하는것이다.
  + 로마 8장 9절에 “그리스도의 영” 이란 그리스도 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셩령을 말한다. “그리스도” 와 “영” 을 같게 보는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것으로 보는것이다.
  + 성령을 가르켜 성령이라 하지 않고 “그리스도의 영” 이라고 명칭 하는것은 성령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한다. 자기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“그리스도의 영” “하나님의 영” 이라고 명칭하시는것이다.
  +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적이 몇번 있었다.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에 아브람함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끄시고 나타나신다. 이것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라고 한다.
  + 그렇다면 천사인지 그리스도 인 어떻게 아나? 천사이면 사람의 경배를 안받고 자신은 천사이니 경배하지 말라고 한다. 그러나 예수님이거나 하나님 이면 경배를 받으신다.
  + 성령님은:
    -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분이시고
    - 하나님과 동등하신분 이고
    - 요16:7
    -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해
      * 창2:7
        + 흙 + 생기(성령) = 생령(사람)
        + 사람 – 생기(성령) = 흙
      * 겔37:1-10
        + 해골 + 생기(성령) = 여호와의 군대
        + 성령을 빼면 해골일 뿐이다
    - 생령 = 생기, 바람, 영, 성령, 입김 = 헬라어로는 루아흐
  + 죄와 욕심과 죽음과 심판아래 있는 인간을 표현하여 성경 에서는 “육” 이라고 한다.
  +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:
    - 8복
      * 하나님과 신령한 말씀에 대해 가난한 마음(목마른 마음) 을 갖게 함.
      * 애통하는 마음 ( 우리가 하나님의 뜻때로 살지 못할때 )
      * 의에 목마름
      * 궁휼한 마음
      * 마음이 청결한자
      * 화평하게 하는자
      * 온유한 마음
      *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자